

'수출 5대 강국' 목표 내걸었지만 가시밭길

파업·반도체 불황에 내년 전망 불투명

내년 수출 4% 감소...내수도 침체국면 전망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무역적자가 장기화하고 최근 수출까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6291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1월 중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7위에서 6위로 올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누계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록했던 최고 실적(6444억 달러)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국 금리 인하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당장 내년 전망부터 불투명하다.

특히 올해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상품 성장세가 멈추면서 4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였지만, 지난 10월 전년 대비 5.7%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4%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 8월(-7.8%)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9월(-5.7%), 10월(-17.4%), 11월(-29.8%)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5대 주요 수출 품목 실적 역시 자동차(31%)·석유제품(26%)·이차전지(0.5%) 등 4개 품목

만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대부분 품목이 감소했다.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크게 올라 71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8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세웠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아울러 올해 1~11월 누적 무역적자는 426억 달러로, 1956년 무역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 줄어든다고, 반도체도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이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경우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하는 국면에 위치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과 연초 단기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밤 시간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7일 대비 159%로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휴업을 고려하는 등 운송 차질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지원 사업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대체연료 보급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기아, 2024년 美조지아서 EV9 생산

대형 전기 SUV 'EV9' 생산...EV6도 생산 검토



'2022 부산국제모터쇼' 언론공개 행사 열린 지난 7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기아자동차가 대형 전기 SUV 콘셉트카 'EV9'를 공개하고 있다.

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콘퍼런스 토크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인 조지아 공장을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EV9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현지 생산을 통해 EV9이 7500달러의 세역 공제 혜택 중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배터리 광물 조달비용 및 북미산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절반씩인 375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아는 EV6의 조지아 공장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달부터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제네시스 전기 SUV인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한다.

기아가 2024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EV9을 생산하기로 했다.

기아는 지난 5일 증권사 애널리

내년 연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

집값 9억 이하·최대 5억 대출...소득요건은 없어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며, 소득 요건은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차주-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

리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보다 0.45%포인트 낮아 오려 무주택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앨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지급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작년 출생아 83.6세까지 산다

5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6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더 살게 된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년 높은 수준이다.

작년 출생아에게 생애 가장 위험적인 사망 요인은 암이다. 5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만약 암을 정복한다면 기대수명은 3.5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확률도 1년 사이 5배나 늘었다.

통계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말한다.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늘었으며 20년 전보다는 7.1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 등으로 기대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기대수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에는 62.3년이었으나 1987년(70.1년) 70년, 2009년(80.0년) 처음 80년을 넘어섰다.

LH,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로 "하루 최대 46억 피해 추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공공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 비해 46곳이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원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다.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과 입주지원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LH는 설명했다.



두레쥬르,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굿즈 출시 이후두레쥬르가 6일 서울 중구 두레쥬르 제일예당센타점에서 2022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출시한 한정판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 두레쥬르는 인기 디자인 스튜디오 '서커스보이밴드'와 손잡고 케이크 칼, 서버,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윈드랜드 케이크 서버'를 출시했다. /뉴시스

"韓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3위...여전히 심각"

2017년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8위→3위로 상승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5.6%에 달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BIS의 올해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포인트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0.2%포인트 상승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고, 상위 10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홍콩(0.7%)에 불과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2분기 가계부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으로,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오기형 의원은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올랐다"며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테크노파크, 2년내 지역기업 8개사 코스닥 상장 추진

광주시·광주TP·상장후보기업간 협조체제 구축 MOU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가 2년 내 지역기업 8개사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에서 활동 중인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인 ㈜엑셀트리벤처스(대표 윤우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상범)와 합동으로 6~7일 이틀간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IR)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2년 내 상장후보기업 8개사 간 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업맞춤형 상장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기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MOU)이 체결됐다.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코스닥 상장사 수는 547개사이나 광주 중소기업 중 상장기

업은 1개사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상장후보기업 22개사를 발굴해 후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와 함께 직접 기업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우수사례 노하우 강연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실전전략 강연 등 투자역량 강화 지원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얻어붙은 IPO(기업공개) 시장상황 중에도 상장후보기업 22개사 중 8개사가 향후 2년 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의 성장세로 지역 인체의 고용창출과 함께 광주 기업 생태계가 탄탄해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형안 기자

화물연대 파업 관련 피해접수센터 운영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피해접수센터'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되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등 주요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잠정 집계한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분야 7일간 손실액은 1조 6000억원 규모라고 광주·전남중기청은 밝혔다.

'피해접수센터'에 접수된 각 사례는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해 중소기업부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지원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로 이관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피해 규모가 확산될 경우 정책 금융·물류비 간접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기청 이현조 청장은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류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아파트 경매 낙찰률 13년만 최저

전국 경매시장에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6일 발표한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서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전월 36.5%보다 3.7%포인트(p) 하락한 32.8%로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3월 28.1%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78.6%로 전월 83.6%보다 5.0%p 하락하면서 2013년 5월 79.8% 이후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4.2%로 전월 17.8%보다 3.6%p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3.6%로 전월 88.6%보다 5.0%p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